



원천 기술 확보와 비전의 실천으로 세계 속의 KNFC를 만들어 갈 터

한전원자력연료(주)

히 망찬 돼지해 정해년(丁亥年)을 맞아 한전원자력연료는 올 해도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한전원자력연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거셌던 지난 한 해, 우리 회사는 많은 변화와 혁신의 성과들을 이루었다.

우리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고도·막중한 임무인 경·중수로 핵연료 생산 목표를 100% 달성하여 국내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 차질 없이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전력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개량 연료 PLUS7을 처음으로 원전에 상용 공급하여 장전하고,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ACE7 개량 연료도 2008년 첫 상용 공급을 앞두고 계획된 시험들을 차례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착수한 해외 수출

이 가능한 고유 핵연료 개발과 X-Gen 코드 개발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고품질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확장도 추진하여, 2월에 지르코늄합금 튜브 공장 건설을 착공하여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부터 시험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세라믹 설비 증설 공사도 상당 부분 진척을 보았다.

골격체 자동 벌징 장비의 개발과 우라늄 스크랩 재생 공정을 개발 완료하고 Gd 소결체의 국산화를 완료하였으며, 초음파를 이용한 크러드 제거 기술도 개발에 성공하는 개가를 거두었다.

한편 핵연료의 핵심 부품인 지지격자체와 압축 스프링 등을 해외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6년 연

속으로 '국가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됨은 물론, 대외 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기술혁신 경영대상',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한국 아이디어 경영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개량 연료 ACE7은 '국가 연구 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공기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윤리 경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전력 그룹사 청렴도 조사'에서 1위를 거두었으며, 정부 산하 기관 및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상위 등급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 해에도 한전원자력연료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한 차원 높은 가격 경쟁력, 기술과 품질 확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원천 기술 확보와 전사적 비전의 실천,



비전 수립 워크숍.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작년에 전사적 비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직원 공청회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2020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상생적 노사 관계의 정착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원천 기술의 확보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세계는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여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만 kW급의 원전 약 100기가 건설될 전망이다.

이와 아울러 세계 원전 시장의 재편과 메이저 원전사들의 합종연횡, GNEP, FTA 협상 등으로 전에 없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전개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아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 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 제공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간 내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는 자

칫 핵연료 제조 회사로 전략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비전의 정립과 착실한 실천

우리 회사는 작년에 전사적 비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직원 공청회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2020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우리 회사의 비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마인드 혁신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길이다.

그런 만큼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무장하여 2020년 그날, 뛰어난 역량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행복을 만드는 일류 에너지 기업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이다.

상생적 노사 관계의 정착

우리 회사는 그 동안 노동조합과 성숙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를 포함해 모든 임직원이 친절과 사랑으로 상생적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학벌, 파벌, 부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따뜻한 마음과 온화한 자세로 서로 칭찬하는 근무 분위기 일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 한 해의 시작은 희망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삶은 암흑과도 같다.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 희망은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껏 이룩해온 거대한 성과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을 달성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그 희망을 이룩하여 기뻐할 자격이 있다.

세계를 제패하고 행복을 만드는 일류 에너지 기업! 바로 한전원자력연료(주)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